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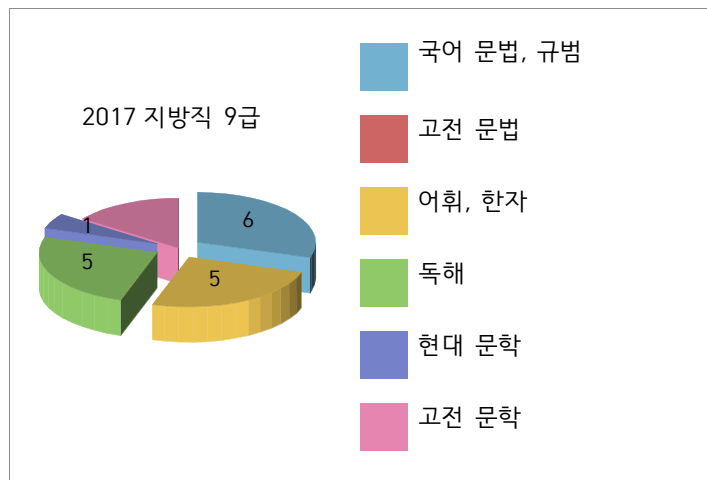
2017. 6. 17. 시행 지방직 9급 국어

문제와 해설: 공단기 이선재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와 자세한 해설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해설 강의는 6월 17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후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지방직 9급, 새로운 문제 유형은 없었으나, 난도는 올라갔다

7급에서 출제된 어법 문제 출제,
국회직 8급에서만 출제된 작품 및 한자, 어휘 출제
독해도 지문 길어져
전체 평균 내려갈 것으로 예상



지식형 문항 (11)	국어 문법 국어 규범 (6)	형태론(2):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대명사 통사론 (1): 높임법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2) 의미론(1)
	어휘 · 한자 (5)	어휘 (3): 관용구, 단위어 등, 한자 (2)
수능형 (지문 분석형) 문항 (9)	독해 (5)	내용 일치(3) 개요 파악 · 주제 찾기 (1) 논증 구조 (1)
	현대 문학 (1)	현대 시 (1)
	고전 문학 (3)	시조 (3)

★적중

번호	유형	적중 내용
1	국어 규범	나침판 1 7회 4번, 9회 15번
3	어휘	나침판 1 11회 17 보충 문제, 반쪽 어휘·한자 모의고사 2회 1번, 5회 1번
4	고전 시가	심화 단원별 07장 어휘·한자 58번
5	고전 시가	2017 선재국어 3권 344쪽
6	한자 성어	2017 선재국어 4권 239쪽
8	국어 문법	나침판 1 3회 8번, 심화 단원별 01장 63번
11	고전 시가	2017 선재국어 3권 344쪽
12	표준어	나침판 1 13회 01번, 나침판 2 10회 05번, 반쪽 4회 04번, 어휘·한자 모의고사 7회 2번
18	국어 문법	나침판 1 02회 12 보충 문제, 나침판 2 02회 11번, 6회 16번, 반쪽 1회 02 보충 문제, 5회 09번, 10회 02 보충 문제, 14회 02번
19	국어 문법	심화 단원별 01장 24번, 나침판 2 17회 03번

★총평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내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 지방직은 국가직보다 난도가 높다, 국가직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마라,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하라……. 《나침판 실전 모의고사》의 난도가 높다는 불만도 있었고, 《반쪽 모의고사》에서 독해와 한자, 어휘를 너무 강조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난도가 높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학습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이번 지방직 9급 시험은 예년의 지방직 시험 및 올해 국가직 시험보다 난도가 높아진 시험이었다. 지식형 문제(11문항)와 분석형 문제(9문항)의 조화라는 커다란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고, 문제 역시 새로운 유형이 출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법에서는 기존의 9급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은 내용(대명사의 인칭 구별)이 나온 것, 어휘 및 한자가 5문항이나 나온 것, 독해 역시 기존 시험보다 길이가 길어진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시험의 난도는 예년 시험에 비해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시는 국회직 8급에서만 두 번 출제된 작품이었으며, 한자 지문 역시 국회직 문제와 동일 지문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체감 난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며, 실제 점수 역시 전년도 시험 및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 비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문법은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국어 규범에서 고루 출제가 되었다.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변별, 대명사의 인칭 변별, 유의어의 구별 등 기존 기출 유형에서 벗어난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문법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있어야 풀이가 가능한 문제들이 나와서 기본 이론을 충실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명사에 대한 지식형 문제는 7급에서 주로 나왔던 문제 유형이어서, 기본 이론을 충실히 듣지 않은 학생들은 풀이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독해는 다른 시험들보다 다소 길이가 길어졌다. 전반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논증 구조를 묻는 문제가 간만에 출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평소에 중간 정도 길이의 지문으로 문제 풀이를 충실히 했거나, 또는 〈독해야 산다〉 같은 자료를 꾸준히 풀었던 학생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학은 현대 시와 시조에서만 출제되었는데, 아무래도 독해의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 문학 작품을 짧은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현대시는 과거 국회직 8급에서 출제되었던 작품이 출제되었다. 이 작품은 2016년에 국회직에서 한자 문제로 다시 출제되었던 것이기도 한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현대 시 역시 난도가 올라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휘와 한자를 살펴보고자 하자. 무려 5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일부 한자의 수준 또한 높았다는 점을 살펴볼 때, 이번 시험의 체감 난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관용어, 단위어, 한자 등에서 골

고루 출제된 점, 그리고 한자 변별 문제가 2문항이 나왔다는 점 역시 학생들의 부담감을 가중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지방직 시험의 난도가 다소 높았으므로, 전체적인 합격선도 예년에 비해 내려갈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조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형과 분석형의 조화라는 큰 틀을 염두에 두되, 자신에게 부족한 영역을 집중 학습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휘와 한자, 독해에 취약하므로 기본 강좌 및 압축 마무리 또는 기출 강좌를 활용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것을 권한다.

둘째, 기본 이론을 충실히 하고, 기존의 시험보다 조금 더 높은 난도로 학습하기를 바란다.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이야기이다. 수업 시간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미 우리가 풀었던 《반쪽 모의고사》나 《나침판 모의고사》는 기존 시험에 비해 난도가 높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의 수준을 자의적으로 예단하고 대비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난도가 있는 시험에 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다. 지금이라도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압축하여 회독하고 기출 유형을 충실히 점검하여 앞으로의 시험을 알차게 대비하기를 바란다.

수험이라는 과정은 큰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것이라고 종종 말하곤 한다. 파도가 높으면 모두가 힘든 것이고, 파도가 잔잔하면 모두가 편안하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불리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다시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를 바란다.

1.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2017 지방직 9급

- ① 바닷물이 퍼레션 무서운 느낌이 든다.
- ② 또아리 틈 뱀은 쳐다보지 마라.
-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뒤라.
- ④ 문을 잘 잠궤야 한다.

정답 ①

해설 ‘퍼렇다’는 ‘ㅎ’불규칙 용언으로 ‘ㅎ’불규칙 용언’은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 ‘-아/-어’가 ‘-애/-에’로 변화되어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함께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따라서 ‘퍼렇--어서’는 ‘퍼레서’가 되므로 ①이 맞는다.

오답 풀이 ② 또아리(×) → 파리(○): ‘또아리’는 ‘갈퀴발의 다른 끝을 모아 휘감아 잡아맨 부분’을 의미한다. 뱀이 둥글게 틀어져 있는 것은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또는 그런 모양’을 의미하는 ‘파리’를 쓴다. [예] 구렁이가 파리를 틀고 있다.

③ 머릿말(×) → 머리말(○): 사이시웃은 전제 조건인 사잇소리가 나지 않으면 표기할 수 없다. ‘머릿말’은 사잇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이므로 ‘머리말’로 써야 한다.

④ 잠궤야(×) → 잠가야(○): ‘잠그다’가 바른 표기이고 ‘잠그다’[잠구다(×)]는 ‘잠가 - 잠그니’로 활용하므로 ‘잠가야’로 쓰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2. 밑줄 친 말의 의미는? 2017 지방직 9급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방을 만나 보았다.

- 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 ② 자신이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 ③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④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정답 ②

해설 ‘말길이 되다’는 ‘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라는 뜻으로 선택지에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라는 뜻의 관용어는 ‘말꼬리를 물다’이다.

③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라는 의미의 관용어는 ‘말이 있다’이다.

④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라는 뜻의 관용어는 ‘맛(을) 붙이다’이다.

3.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017 지방직 9급

- 쌈: 바늘 () 개를 묶어 세는 단위
-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 첩
- 거리: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개

- ① 80 ② 82 ③ 90 ④ 94

정답 ④

해설 ‘쌈’은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로, 한 쌈은 바늘 24 개를 이룬다. ‘제(劑)’는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한 제는 탕약(湯藥) 20 첩을 이룬다. ‘거리’는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로,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 개를 이룬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4+20+50=94’이다.

4. 밑줄 친 시어의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2017 지방직 9급

㉠春雨暗西池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羅幕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屏風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檣頭㉣杏花落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작품은 5언 절구의 한시 허난설헌의 〈봄비〉이다. 이 시는 규중 여인의 고독하고 외로운 정서를 ‘봄비’, ‘찬바람’, ‘살구꽃’ 등의 객관적 상관물로 드러낸 점이 특징적이다. 결국(4행)에서는 젊은 날을 허망하게 보내고 늙어가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살구꽃이 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 ‘杏花(살구꽃)’이 화자와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 ‘春雨(봄비)’ 역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허난설헌, 〈봄비〉

1. 갈래: 5언 절구
2. 성격: 애상적, 독백적, 서정적
3. 표현과 특성: ① 선경 후정의 시상 전개 ② 객관적 상관물(봄비, 찬바람, 살구꽃)의 적절한 활용
4. 주제: 규중 여인의 고독
5. 출전: 《난설헌집(蘭雪軒集)》
6. 해설: 〈봄비〉는 전반부에서는 배경을 제시하고 후반부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선경 후정의 구성 방식으로 전개된다. 또한 ‘봄비, 찬바람, 살구꽃’ 같은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재 너머 성권농(成勸農) 집의 술 닛닷 말 어제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줄테고.
아히야 네 권농 거시나 덩좌슈(鄭座首) 왔다 히여라

- ①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 ②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 ③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④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작품은 정철의 시조로, 전원생활의 멋과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중장은 풀이하면 ‘누워 있는 소를 발로 차서 일으켜 깔개를 엮어서 눌러 타고’이다. 술벗을 찾아가는 화자의 급한 마음이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로, 화자의 소탈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언치 놓아’가 격식을 차리려는 태도를 드러낸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언치: 말이나 소의 안장이나 길마 밑에 깔아 그 등을 덮어 주는 방석이나 담요

- 오답 풀이 ① 이 시조에서 ‘성권농’은 성혼을 가리킨다.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나누려 급히 찾아간다는 시조의 내용에서,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사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④ ‘아히야’라는 영탄적 어구로 화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히’는 화자(‘명좌슈’)가 방문했음을 ‘성권농’에게 대신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철, <재너머 선권농 집의>

- 갈래: 평시조, 단시조
- 성격: 강호 한정가, 풍류적, 해학적
- 표현과 특성: ① 비약법의 사용 ② 서사적, 압축적
- 주제: 전원에서의 풍류와 여유
- 출전: 《송강가사》
- 해설: 작가의 풍류와 맛이 농촌의 정취와 잘 어우러져 있는 작품이다. 생동감 있는 우리말의 구사가 돋보이며, 종장과 종장 사이의 비약을 통해 술벗을 찾아가는 작가의 신명과 호기가 잘 표현되어 있다

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2017 지방직 9급

- 자루한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정보화 사회일수록 ㉡유언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

㉡

㉢

- | | | |
|-------|------|----|
| ① 長廣舌 | 流言蜚語 | 辨明 |
| ② 長廣舌 | 流言非語 | 辯明 |
| ③ 長廣說 | 流言蜚語 | 辯明 |
| ④ 長廣說 | 流言非語 | 辨明 |

정답 ①

해설 ㉠ ‘장광설’은 ‘長廣舌(길 장, 넓을 광, 혀 설)’로 쓴다.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을 뜻한다.

㉡ ‘유언비어’는 ‘流言蜚語(흐를 유, 말솜 언, 바퀴 비, 말솜 어)’로 쓴다.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을 말한다.

㉢ ‘변명’은 ‘辨明(분별할 변, 밝을 명)’으로 쓴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힘’의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② 非 아닐 비, 辯 말 잘할 변

③ 說 말솜 설

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忍冬茶〉

-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이다.

정답 ④

해설 정지용의 〈인동차(忍冬茶)〉는 시련을 묵묵히 견뎌내는 삶의 자세를 동양적, 관조적 분위로 그려낸 시이다. 4연의 ‘잠착하다’는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라는 뜻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잠착하다(潛着--): ‘참척하다’의 원말

*참척하다: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

오답 풀이 ①·③ 5연의 ‘산중(山中)’, ‘삼동(三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적막한 겨울 산중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동차를 마시는 노인과 주변의 자연물을 마치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삼동(三冬): 겨울의 석 달 ≡ 동삼(冬三) / 세 해의 겨울

② 2연과 3연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시각적으로 대비되어 있는데, 장작불의 붉음과 무순의 파릇함은 모두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즉 시각적 대비를 통해 암울한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지용, 〈인동차〉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동양적, 관조적, 회화적
3. 표현과 특성: ① 동양적 세계관을 표현함. ②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견인(堅忍)의 태도를 드러냄.
4. 주제: 시련을 묵묵히 견디는 인내
5. 해설: 〈인동차〉에서 ‘인동(忍冬)’은 한자 그대로 겨울을 이겨 낸다는 뜻이다.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노주인이 인동 삶긴 물을 나리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참고 이겨 내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노주인의 태도에서 바깥세상에 초연한 채 정신적 고결함을 지키면서 혹독한 현실을 견뎌 내고자 하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8.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2017 지방직 9급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 ① [주체 -], [객체 +], [상대 -] ② [주체 +], [객체 -], [상대 +]
- ③ [주체 -], [객체 +], [상대 +] ④ [주체 +], [객체 -], [상대 -]

정답 ①

해설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라는 문장에서 주체는 ‘나(내가)’로 나에 대한 높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체 -]로 표시해야 한다.

•객체는 ‘선생님’으로, ‘선생님께’에서 ‘께’라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가 쓰였고, ‘드렸다’에서 ‘드리다’와 같이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으므로 [객체 +]이다.

•이야기를 듣는 상대인 숙희에게 ‘드렸다’에서 ‘-다’라는 반말체(반말 격식 해라체)로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 -]이다.

9.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2017 지방직 9급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형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적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하듯 미(美)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정답 ①

해설 미(美)는 그 자체로 자유롭다기보다는 외부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글쓴이의 견해이다. 미는 어떠한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글쓴이의 견해와 대비되는 것이다. 따라서 ①은 ‘시’를 외부 맥락과 분리시켜, 그 자체의 구조적 질서에 주목하여 감상해야 한다는 견해이므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한다. 나머지는 모두 ‘시’를 외부 맥락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다.

선택지들을 문학 이해의 방법과 대응하면, ①은 내재론적 방법인 구조론적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③·④는 모두 외재론적 방법으로 ③은 효용론적 방법, ④는 반영론적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0. 밑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파적 나을 높은 생겨나도 앓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결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벼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어 놓인 곡식이 말짱 뉘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 두고 일이다 무슨 ㉢난장 맛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메밥으로 ㉣사관을 틀었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몫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 김유정, <만무방>

- ① ㉠: 심심풀이 ② ㉡: 안잠 ③ ㉢: 몰매 ④ ㉣: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정답 ②

해설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으로,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을 의미한다. ‘안잠’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를 의미하는 말로 ㉣ ‘새우잠’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파작: =심심풀이. 심심함을 잊고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함. 또는 그런 일

③ 난장: =몰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비어 때리는 때

④ 사관: 양쪽의 팔꿈치와 무릎 관절을 통틀어 이르는 말

11.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2017 지방직 9급

내히 죠타 하고 늬 슬흔 일 하지 말며
늬이 한다 하고 義 아니면 좇지 말니
우리논 天性을 직히여 삼긴 대로 하리라

① 率性 ② 善交 ③ 遵法 ④ 篤學

정답 ①

해설 고려 말기·조선 전기의 학자 변계량의 시조이다. 유교적 덕목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으로 주제는 의(義)에 따라 천성을 지키며 살려는 의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 ‘率性(거느릴 솔, 성품 성)’으로 ‘솔성’은 ‘타고난 성질 / 천성을 좇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② 善交(착할 선, 사귄 교): 잘 사귀.

③ 遵法(좇을 준, 법 법):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

④ 篤學(도타울 독, 배울 학): 학문에 충실함.

〈우리말 풀이〉

내가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의 아니면 좇지 마라.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생긴 대로 하리라.

12.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2017 지방직 9급

①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②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③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닫하게 되었다.

④ 그 사람은 허구헌 날 팔자 한탄만 한다.

정답 ③

해설 ‘깨닫하다’는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의 의미인 표준어이다.

오답 풀이 ① 뉘연히(×) → 버젓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 남의 축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번듯하게

② 뒤어내다(×) → 뒤져내다(○): 살살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

④ 허구헌(×) → 허구한(○): ‘허구하다(許久--)’는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의 의미이다.

13.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
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익(威儀)을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
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強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
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 조지훈, <지조론>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문맥상 ‘일조’는 ‘一朝(한 일, 아침 조)’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일조’는 주로 ‘일조에’ 꼴로 쓰여 갑작스러운 정도의 짧은
은 시간을 의미한다. ‘日照(날 일 비출 조)’는 ‘햇볕이 내리쬐’의 뜻이다.

오답 풀이 ① 확집(確執: 확실할 확, 잡을 집):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

② 위익(威儀: 위엄 위, 거동 의):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 예법에 맞는 몸가짐

③ 강도[強(=強)度: 강할 강, 정도 도]: 센 정도

14.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2017 지방직 9급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충만
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해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 ‘흐드러지다’, ㉡ ‘찍다’, ㉣ ‘설레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 ㉣이다.

㉠ 흐드러지다: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성하다 / 매우 흐뭇하거나 푸지다’의 의미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
사이다.

㉡ 충만하다(充滿--): ‘한껏 차서 가득하다’의 의미로 역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로 보아야 한다.

㉣ ‘없다’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생겨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등의 의미로 형용사로만 쓰인다.

오답 풀이 ㉢ ‘찍다’는 어떤 대상을 촬영기로 비추어 그 모양을 옮기는 동작을 나타내며 명령형과 청유형이 가능하므로 동사
이다.

㉤ ‘설레는’은 현재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었으므로 동사로 변별된다.

15.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2017 지방직 9급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가며 차츰 폭
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
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쫓아가지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쫓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풀이이다.

-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 ②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 ③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 ④ 예측된 결과만을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정답 ②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정상 과학’은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패러다임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다. 따라서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과학적 패러다임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적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진술한 ②가 정답이다.

오답 풀이 ① 정상 과학 시기는 과학적 세계관의 통일인 하나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척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상 과학 시기에 여러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의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로 보아, 정상 과학 시기에는 실험 장치, 문제 해결 기법, 규칙 등이 다양해짐으로써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③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다고 하였으므로 정상 과학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다는 진술은 맞다. 그러나 세 번째 단락에서 패러다임이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상 과학 시기에는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네 번째 단락에서, 글쓴이는 예측된 결과를 쫓아가는 정상 과학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그리고 이후 단락에서 과학자들이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풀어내기 위해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 방법을 동원하는 등 열정과 헌신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쿤의 대답(수수께끼 풀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 과학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6.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유의어	예문
죽이다	㉠
쥐다	㉡
어림하다	㉢
진압하다	㉣

-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 ② ㉡: 그들은 먹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 ③ ㉢: 술집 주인은 손님's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잡다’의 뜻과 유의어의 뜻이 서로 비슷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어림하다’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의 의미인데 ㉢의 ‘잡다’는 ‘담보로 맡다’의 의미이므로 예문이 적절하지 않다. ‘어림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로는 ‘이 책들을 권당 5,000원으로 잡아도 100권이면 50만 원이다’ 정도를 들 수 있다. 참고로 ‘어림하다(御臨--)’는 ‘임금이 자리에 참석하다’의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죽이다’는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의 의미인 ‘죽다’의 사동사이고, ㉠의 ‘잡다’는 ‘짐승을 죽이다’의 의미이다.

② ‘쥐다’는 ‘어떤 물건을 손바닥에 들게 하거나 손가락 사이에 낀 채로 손가락을 오므려 힘 있게 잡다’의 의미이고, ㉡의 ‘잡다’는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의 의미이다.

④ ‘진압하다’는 ‘강압적인 힘으로 억눌러 진정시키다’의 의미이고, ㉣의 ‘잡다’는 ‘기세를 누그러뜨리다’의 의미이다.

17.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2017 지방직 9급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 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다.

- ①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답 ②

해설 두 번째 단락에 조간대 중부의 환경적 특성이 나타나 있을 뿐, 조간대 중부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 시문에서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마지막 단락에 따르면, 총알고둥류가 있는 조간대는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조간대의 상부는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따라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조간대 상부임을 알 수 있다.

- ③ 마지막 단락의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를 통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다.
④ 첫 번째 단락의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에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여러 환경적 조건이 나열되어 있다.

18.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지방직 9급

서론: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본론: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1. 가격 경쟁력 요인

ㄱ. 제조 원가 상승

ㄴ. 고금리

ㄷ. 환율 불안정

2. 비가격 경쟁력 요인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ㄴ. 품질 개선 부족

ㄷ. 판매 후 서비스 부족

ㄹ. 납기의 지연

결론: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 ①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③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본론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낮아진 원인’을 가격/비가격 경쟁력 요인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본론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제문에는 본론의 실태 분석 결과를 요약한 내용과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것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분석과 그에 맞는 방안 마련’을 제시한 ④이다.

오답 풀이 ① 주제문에는 본론의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른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수출 분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본론의 분석 결과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내수(內需) 시장의 기반 강화는 수출 경쟁력 요인 분석이나 수출 경쟁력 향상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내수(內需): 국내에서의 수요(需要).

③ 본론의 분석 결과에서 ‘2. 비가격 경쟁력 요인’의 일부 내용만을 반영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한 주제문이다. 개요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지요.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서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답 ③

해설 인칭 대명사에 관한 문제이다. ㉡ ‘당신’은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로,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다. 앞 문장의 주어인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오답 풀이 ① ㉠ ‘저’는 말하는 이가 뒷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이다. 하지만 ‘그쪽’은 ‘듣는 이 또는 듣는 이들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므로 모두 1인칭 대명사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② 이 문장에서 ㉠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 ‘저’와 ㉡ ‘할머니’를 아우르는 말이 아니라 ㉡만 가리키는 말이다.
④ ㉢ ‘본인’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를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 문장에서는 ‘할머니’를 가리킨다. 반면 ㉣ ‘당신’은 2인칭 대명사이다.

20.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2017 지방직 9급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① ㉠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② ㉡은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③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④ ㉢은 ㉢, ㉣에 대한 근거이다.

정답 ③

해설 ㉢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소리는 겉모습만 유사할 뿐, 근본적 차이가 있다’라는 ㉢의 진술은 ‘동물도 인간의 언어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과 ㉡(㉢의 상술)을 부정하고,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소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 ㉣에 의해 부정되는 진술이다. 이 글의 주제문은 ㉢, ㉣을 근거로 하여 결론으로 도출된 ㉢이다.

- ② ㉡은 ㉠의 일반적 진술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상술’에 해당한다.
④ ㉢은 ㉢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고, ㉢, ㉣을 근거로 하여 ㉢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